



호쾌한 티샷

지은희가 11일 함평다이내스티CC에서 열린 국민은행스타투어 2차대회 17번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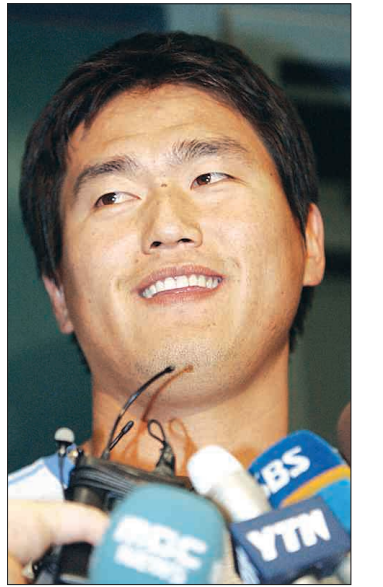
“KIA와 고향 팬들 하루빨리 만나고파”

KIA 최희섭 귀국 인터뷰

“하루빨리 고향 광주의 그라운드를 누리고 싶습니다.” 한국인 타자 메이저리거 1호 최희섭(28·KIA)은 11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한국에 와서 너무 기쁘고, KIA와 고향 팬들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뜻 하다. 중요한 것은 KIA 감독·코치들에게 빨리 인사를 드리고 팀에 합류하고 싶다. 또 요즘 KIA의 성적이 별로 안 좋은 것으로 알고있다. 시차 적응 등 컨디션을 최단기간내에 되찾아 팀의 전력에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 뿐이다.

있지만, 정상 컨디션만 되찾는다면 ভাল 자신이다. -한국에 온 결정적인 계기는, ▲3월만해도 메이저리그에 다시 진출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막상 한달이 지나고 보니 기회가 없어 지는 것 같았다. 미국 다름팀과 일본 무대를 알아보고도 했는데, 한국에 온 이상 새롭게 태어나고 싶다. 과거는 더 이상 묻지 말아달라.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최희섭이 입국장을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뉴스

-끝으로 고향 팬들에게 한마디. ▲야구장을 많이 찾아주시고 뜨거운 응원도 해 주셨으면 한다. 그라운드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한편 최희섭은 이날 서울에 머문 뒤 12일 고향 광주로 내려와 선수단 상견례와 감독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구단 입단식은 오는 1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지은희·박희영 “또 만났네”

함평다이내스티CC, KB 스타투어 2차대회 2R 1·2위

신지애는 공동 6위

지은희(21·캘러웨이)가 2주연속 우승에 파란불을 켜다. 지은희는 11일 4계절 양산디 골프장 함평다이내스티CC(파72·6천276야드)에서 열린 KB국민은행 스타투어 2차대회 둘째날 버디 3개와 보기 1개로 2타를 줄여 함께 6언더파 138타로 단독 선두에 올랐다.

에 첫 우승의 기쁨을 맛 본 지은희는 2주 연속 우승 가능성을 크게 열어젖혔다. 그러나 프로 데뷔 동기가자 ‘몰아치기’에 능한 박희영(20·이수건설)이 함께 5언더파 139타로 1타차 2위에 포진해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 휘닉스파크 클래식 마지막날 챔피언으로서 7타차의 간격을 1타차까지 좁히며 끝까지 지은희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박희영은 이날도 버디 4

개와 보기 1개로 3언더파 69타의 ‘데일리베스트’샷을 날려 지은희와 마지막날 같은 조에서 우승을 다투게 됐다. 박희영은 “지난주처럼 아쉽게 우승컵을 내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타차이기 때문에 충분히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승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프로 4년차 박하나(24)가 함께 4언더파 140타로 공동 3위에 올랐다. 1

라운드 코스레코드를 타이거우즈(6언더파 66타)로 단독 선두에 올랐던 신지애(19·하이마트)는 이날 갑작스럽게 샷이 흔들리며 버디는 1개로 그나마 보기 3개와 더블보기 1개로 4타를 잃어 함께 2언더파 142타로 디펜딩 챔피언 최나연(20·SK텔레콤)등과 함께 공동 6위로 내려앉았다. 국민은행 스타투어 1차대회 우승자 안선주(20·하이마트)는 1타를 줄여 함께 이븐파로 공동 11위에 머물렀다. 2라운드를 끝낸 6오버파 150타를 친 박희영은 “타차이기 때문에 충분히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승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최종라운드는 Xports가 오후 2시~4시까지 생중계 한다.

한국 1·2·3위 ‘독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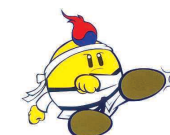
이정연·김미현·김주연 LPGA 미켈름 오픈 1R

‘슈퍼팡공’ 김미현(30·KTF)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주 연속 우승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김미현은 11일(한국시간) 버지니아주 윌리엄스버그의 킹스밀골프장 리버코스(파71·6천315야드)에서 열린 LPGA투어 미켈름 오픈 1라운드에서 보기없이 버디만 7개를 골라내 7언더파 64타를 때려냈다. 8언더파 63타를 치며 단독 선두에 나선 이정연(28)이 1타차로 2위에 자

리한 김미현은 드라이브샷 페어웨이 안착률 100%에 무려 17차례나 버디 찬스를 만들어내는 절정의 샷 감각을 보여 지난 7일 썬그림 챔피언십 우승에 이어 2연승 꿈을 부풀렸다. 김미현은 2002년 창설된 이 대회에서 네 차례 모두 ‘톱 10’에 입상하는 등 유난히 좋은 성적을 냈지만 우승은 한 번도 없었다. 오랜 슬럼프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2005년 US오픈 챔피언 김주연(26)이 6언더파 65타를 뽑아내며 공동 3위에 올라 1~3위를 한국 선수가 휩쓰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5·18 추모’ 전국 중·고 태권도대회

2,300여명 참가 열전



제9회 5·18광주 민주화운동기념 시장기 전국 남·여 중·고등학교 태권도대회가 11일 개막해 18일까지 8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광주광역시 태권도협회 주관으로 치러지는 이번대회에는 남중부 145개교 907명, 여중부 93개교 333명, 남고부 110개교 742명, 여고부 53개교 286명 등 2천300여명이 참가 기량을 겨룬다. 경기는 중등부 11체급, 고등부 10체급으로 나눠 체급별 토너먼트식으

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대회에는 경기외에 5·18 정신을 기릴 수 있는 각종 홍보행사도 마련돼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개최식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김경길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체육관에서 열린 예정이다. 윤관석 광주시태권도협회회장은 “태권도의 불에 굴하지 않는 정신은 ‘5월정신’과도 일맥상통한다”며 “관정시비가 없는 공정한 대회, 전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대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경주 9위 ‘톱 10 시동’

PGA 플레이어스 1R

‘탱크’ 최경주(37·나이키골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첫날 공동 9위에 올랐다. 최경주는 11일(한국시간) 플로리다주 폰테베드라비치의 소그래스 TPC 스타디움코스(파72.7천93야드)에서 열린 1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2개를 묶어 1언더파 71타를 쳤다. 5언더파 67타를 작성한 공동 선두 필 미켈슨(미국), 로리 사바티니(남아공)와는 4타차. 지난주 와코비아챔피언십 우승으

로 승률 50%를 달성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출발이 좋지 못했다. 우즈는 버디 없이 보기만 3개를 범해 3오버파 75타로 공동 58위까지 처졌다. 신인왕 후보인 앤서니 김(22·나이키골프)은 버디 3개와 보기 6개, 트리플보기 1개로 6오버파 78타를 쳐 공동 108위까지 떨어졌다. 미켈슨은 버디 6개를 뽑아내고 보기는 1개로 막으면서 사바티니와 공동 선두에 올라 대회 첫 우승이자 시즌 2승을 노렸다.



12일(토) ▲메이저리그(탬파베이-토론토) (08:00·Xports) ▲한국여자 프로골프 대회 KB국민은행 스타투어 2차 FR(13:00·Xports) ▲하우젠컵 프로축구(광주 상무-수원 삼성)(13:40·MBC) ▲일본프로야구(요미우리-주니치)(17:50·SBS스포츠) ▲프로야구(KIA-SK)(18:30·MBC ESPN), <현대-삼성>(16:30·KBSN SPORTS)

13일(일) ▲메이저리그(애리조나-휴스턴) (07:55·Xports), <뉴욕Y-시애틀> (10:55·Xports) ▲PGA 투어 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3R(02:00·SBS스포츠) ▲K리그(대구-대전)(15:10·KBS1), <성남 일화-부산 Ipark> (18:30·KBSN SPORTS) ▲일본프로야구(요미우리-주니치)(17:50·SBS스포츠) ▲프로야구(LG- 롯데)(13:50·SBS스포츠), <KIA-SK>(14:00·MBC ESPN)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맨체스터 유나이티드-웨스트햄)(23:00·MBC ESPN)